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을 기념해 경주캠퍼스에 건립한 '동국대 100주년 기념관' 준공식에서 주요 내·외빈이 테이프커팅식을 갖고 있다.

‘일류사학 도약’ 의지 천명

동국대, 20일 경주에 100주년기념관 준공 ‘김교각상’ 봉안...국제학술세미나도 개최

동국대학교가 건학 100주년을 기념해 경주캠퍼스에 건립한 '100주년 기념관'이 지난 20일 준공됐다. 동국대학교는 이를 기념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장지엔용(將堅永)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부국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불교계뿐 아니라 정·관계, 지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 기념관준공 및 김교각 지장왕보살 봉안법요식을 거행했다. 이번 법요식은 미래 일류사학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의 기념관 건립 불사 완료를 알리는 동시에, 경주캠퍼스가 동아시아 불교문화 교류의 거점이자 한·중 불교우호 증진의 중심이 되겠다는 원력을 선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를 통해 "동국대 100주년 기념관에 김교각 지장왕보살상을 봉안하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다"며 "보살상을 이곳에 봉안하는 계기로 1300년 전 중국으로 가셨던 스님의 원력과 덕화가 우리나라에도 동시에 비취 한·중 불교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양국의 문화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를

이루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100주년 기념관은 지난 2007년 8월 착공해 2년만인 지난 9월25일 완공됐으며, 지하1층 지상5층에 건물연면적 9951㎡(3010평) 규모로 세워졌다. 서울캠퍼스를 대표하는 상징 건물인 '명진관'을 현대적 모티프로 재해석해 디자인한 기념관은 서울과 경주 양 캠퍼스가 동국대라는 이름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김교각 지장왕보살상' 봉안법요식이 봉행됐다. 100주년 기념관 1층 로비에 모셔진 김교각 스님은 신라 왕자로 출가해 중국으로 건너가 지장사상을 꽃피우며 지장보살의 현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분. 김교각 지장왕보살상은 지난 2007년 중국 정부가 한·중 수교 15주년과 한중교류의 해를 기념해 증정한 것으로, 같은 해 서울 봉은사에 임시 안치됐다가 100주년 기념관 완공과 동시에 경주로 이운돼 제자리를 찾게 됐다. 김교각 스님상이 한국으로 이송하기까지는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영담스님의 노고가 컸다.

장지엔용 부국장은 "유구한 역사와 김교각 스님의 고향으로 중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경주에, 그것도 유명대학인 동국대에 지장왕보살상이 영구적으로 봉안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중·한 불교계가 지장보살정신을 발현해 사회에 봉사하고 양국 국민에게 기여하며 동아시아 전체를 조화롭게 하는 게 이바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창희 총무실장이 대독한 치사에서 "한류가 동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즈음, 김교각 스님은 한류의 원조라 할 만하다"며 "김교각 스님은 고향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새로운 지장도량을 마련했으니 스님의 불성으로 천만년 영구히 불국정토를 이루기를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이에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은 참석한 대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경주캠퍼스는 이번 행사를 인연으로 한국과 중국의 불교문화 교류를 복원하고 나아가 아시아 불교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새로



지난 20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내 100주년 기념관에 봉안된 '김교각 지장왕 보살상'.

운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경주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불교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본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100주년 기념관 준공을 공식화하는 테이프 커팅식과 '김교각 지장왕보살상' 제막식을 진행했다.

한편 준공 및 법요식 이후에는 동아시아 불교문화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렸다.

▶관련기사 4면
 경주=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불교중흥에 힘 보태겠다”

총무원 부·실장 본지와 인터뷰서 밝혀

신임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이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를 밝혔다. 스님들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성실히 보좌하며 불교중흥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총무원화를 파악해 종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련기사 6~7면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합리적인 인사와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게 인사의 신조”라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사람을 요직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소통과 화합에 걸맞은 총무지침을 설정할 것”이라며 “수석부장으로서는 다른 부서의 현안도 꼼꼼히 챙겨 종단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실장 원철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에서 세계불교의 아이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개발해 해외에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종단의 핵심 현안인 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구역 해제 문제를 비롯해 종교편향 대응, 종책연구소 설립 등에도 비상한 관심을 표명했다.

재무부장 상운스님은 건전한 재정기반 확보를 우선시했다. “일선사찰들이 자신들의 살림을 아껴 남부하는 분담금인 만큼 낭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종지종풍을 선양하고 우리 사회에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면 주머니를 활짝 열어야 한다”며 종책사업을 통한 재정 확충의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문화부장 효탄스님은 “성보(聖寶)를 비롯한 유·무형의 불교문화재 관리와 보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불교문화 진흥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폐사지 복원, 북한불교문화재 조사, 사찰음식 육성 등 내년도 주요사업도 소개했다.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자비나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4대강 사업, 남북교류 등 사회 현안에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호법부장 덕문스님은 “누가 봐도 타당한



불교중흥 기원 식수 지난 19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제33대 집행부 스님들이 소통과 화합, 불교중흥을 다짐하며 조계사 앞마당에 보리수를 심었다. 김형주 기자

양형기준을 확립해 호법업무에 대한 종도들의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새로 임명된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스님, 불학연구소장 원철스님 역시 인터뷰에서 승가교육 발전에 관한 해법을 냈다. 교육부장 법인스님은 “승가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불교의 사회적 위상이 올라간다”며 “교육원 워크숍을 수시로 열어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역설했다. 불학연구소장 원철스님은 “아무리 법과 제도가 훌륭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사람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목적의식이 분명한 수행자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장영성 기자 fuel@ibulgyo.com

호법부, 화재예방 공문시달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부장 덕문스님)는 동절기를 맞아 사찰화재 예방을 위한 협조문을 전국 교구본사에 발송했다. 호법부는 지난 19일 공고한 협조문에서 △법당 내 화재 유발물 사용 최대한 자제 △법당 내 난방기구는 퇴실 시 반드시 전원 확인 △저녁예불 후 주요 시설에 대한 일일 점검 생활화 △비상 소화용품의 일제 점검 △전 기구전에 대비한 안전점검 실시를 당부했다.

장영성 기자

金剛般若波羅蜜經
 3.5x5cm 금강경22쇄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 보급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이 있으며 크기가 3.5 x 5cm 5 x 7cm으로 복장위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1722-1850 (용도 :복장위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특별인터뷰/ 군종교구장 자광스님 14면

‘움직이는 선원’ 출발하는 도법스님 18면

불교 의복문화 세계정상의 기술력과 함께합니다

동양직물 40년 전통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승복지는 세계제일의 기술력을 갖춘 **SAMSUNG 제일모직**이 만들고 **동양직물**이 공급합니다.



동양직물

서울 종로구 예지동 광장시장 1층 183호 | 전화 : 02-2267-1821 | 홈페이지 : www.dongyangtextile.co.kr

승복을 맞추실때는 제일모직 상표를 꼭 확인하세요!

동양직물은 수십년간 불교의복문화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을 자랑스러 여기며 제일모직의 우수한 기술진과 함께 세계정상급 직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